

재관인쇄분야 산증인으로서 기술개발 매진

인쇄문화대상 기술부문 수상



고 광 민

삼화실업(주) 대표이사

“그동안 인쇄기술 개발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상을 수상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상은 제 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한 선조들의 후예로써 묵묵히 인쇄기술의 발전에 종사해 오신 모든 분들을 대표하여 수상한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 인쇄 산업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가 주관하는 제21회 인쇄문화대상 기술부문에 고헌민 삼화실업(주)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고광민 대표이사는 1966년 조선대학교 상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삼화제관(주)(현 롯데알미늄)에 입사하여 인쇄와 제관 분야에서 기술을 익혔으며, 이어 관리, 회계, 기획 분야를 두루 섭렵하면서 경영수업을 쌓아왔다. 이후 1990년 전무이사를 끝으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삼화실업(주)을 이끌고 있다. 고 사장은 그동안 볼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제관인쇄의 기술개발과 저서발간, 후진양성, 인쇄고무 롤러 개발 등에 헌신, 제관인쇄분야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보호 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는 고 사장은 북인천이업중교류회장, 한국기록보존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2004년에는 아산시기업인 대회에서 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광민 사장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과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현재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제품과 한층 발전된 작업환경을 만들지 않고서는 국내 인쇄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발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편이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 사장은 “아무리 훌륭한 기술과 성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곧 사장되거나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인쇄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사장의 남다른 운영철학으로 인쇄기술부문에 힘쓰고 있는 삼화실업은 1973년 설립 이후 32년간 식료품 저장용 금속용기와 금속인쇄, 각종 인쇄용 고무롤러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고무롤러사업은 세계 유수의 3개사와 기술 제휴하여 고품질, 저비용이라는 인쇄산업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인쇄기술 창출에 일조하고 있다. 다른 타 제관회사와는 차별화되게 금속인쇄분야에도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고 사장은 그동안 인쇄기술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 중 코팅롤러 개발로 인한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젤라틴을 주원료로 하는 코팅롤러를 개발하여 귀빈들을 초청하여 설명 및 시연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오븐의 온도센서가 오작동하여 적정온도 이상으로 가열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제품을 꺼내보니 Sol

상태의 죽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의 황당함과 창피함은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고 사장은 모든 기기에 복수제어 장치와 이상경보장치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실수로 인해 삼화실업은 제품에 대한 안전의식이 더욱 강화돼 오히려 전화위복이된 경험이었다.

현재 국내 인쇄산업은 아직까지 일본에 비해 인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 사장은 후진들의 기술 습득에 밑거름이 되고자 틈틈이 기술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인쇄기술 이론가 실제’라는 책을 지난 연말에 편찬했다. 특히 이 책은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 학술부문 추천도서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 제관 및 인쇄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앞으로 유통과정에서 표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석도금강판에 금속인쇄를 한 포장용기의 상품가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인쇄표면에 라미네이트 필름을 코팅하는 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창출시킬수 있도록 미적, 예술적 감각을 지닌 다양한 형태의 용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남다른 장인정신으로 포장 및 인쇄산업 분야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고광민 사장.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포장·인쇄업계가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

이한열 기자